

문 대통령의 1년... 남북 대화의 장 열다

北, '비핵화' 여정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후 지난 1년은 북한을 비핵화의 여정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된 시간이었다. 끈질긴 인내심으로 1년을 참고 기다려 온 문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라는 과거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었다.

보수정권 10년의 유산으로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를 물려받은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내는 데 성공했다. 급기야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깜작 월경', '도보다리 대화' 등 감동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선물했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협상의 달인'(CNN), '해결사 문재인'(블룸버그), '외교의 거장'(복스), '대화의 장인'(리베라시옹), '한국의 빌리 브란트'(슈피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통해 지난 1년 간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나온 5월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취임 초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왔다.

나아가 지난해 11월 29일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날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km)의 성공발사 때까지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보름 간격으로 터져나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응하느라 새벽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했고,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6차례나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6월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첫 대화 의지를 표명한 이후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월 24일), 베를린 선언(7월 6일), 광복절 경축사(8월 15일), 국회 시정연설(11월 1일)을 통해 끊임없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

특히 포커버 재단 초청연설에서는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

평화해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등 '평화 실현 5원칙'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대북 메시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북 대화는 급물살을 탔다. 김영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

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반한 문 대통령의 숨겨진 외교 노력이 숨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워싱턴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13차례 정상통화를 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세 차례 한일 정상회담과 12차례 통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3차례 한중 정상회담과 두 차례 통화를 갖는 등 주변국과의 소통채널 확보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4강(強) 외교를 계속할 예정이다. 우선 9일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한·중·일 3국 특별성명을 이끌어내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를 견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종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변화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는 다자안보체계를 구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정외대는 "2018년 5~6월의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3달 만의 기적 같은 대전환 이면에는 '평화 최우선'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과 끈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집권 1년 이내 '정상회담 성사' 과거 대선 공약 현실화 작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독일 베를린 선언 광복절·국회 시정연설 등 통해 관계개선 메시지 발신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바탕으로 4강외교 계속 진행 한·중·일 3국 특별성명·22일 한미 정상회담 등

(不) 정책'과 동시에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신경제 지도 구상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안보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서 남북 정상회담의 씨앗을 뿌려줬다.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렀고, 회담일 '동행 월경', '도보다리 산책' 등 김정은 위원장과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

국내의 현안으로 한때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이후 83%까지 치솟았다(4일 갤럽·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지는 여당의 제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만의 국회인 것처럼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ll or Nothing"에 매달려 일을 안 한 지 벌써 두 달이 지

정의당 "與 제안 거부한 한국당, 한국당만의 국회인가?"

났다. 결국 자한국당 비리의원의 체포인만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부화뇌화는 그야말로 한국당과 '동조실리단식' 상태"라며 "어제는 특수부, 오늘

은 대선기획을 운운하며 드루킹 특검 이외에 모든 논의를 박차고 나와,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한국당의 목표가 과연 드루킹 특검법이 있는지, 아니면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였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아마도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진성 기자



8일 오전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효도하는 정부 약속 이행 다짐"

국무회의서 "각 정책 세심히 준비를... 아버지 세대에 존경"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가 사회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어버이날로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 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며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 세대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본격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내 어르신 의료비 부담 절감,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체전 北선수단 초청 결의

민평당 조배숙 대표, 법안 대표발의... 남북 문화교류 극대화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제9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표는 8일, 제9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도 각 원내 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20일 전북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전국체전 북한팀 초청 추진의사를 밝힌데 이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 등 북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이미 북한 측에 전국체전 참가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결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4일 최종적으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조 장관으로부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해 국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와 북한당국이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2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배숙 대표는 "비핵화의 물꼬를 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며 "평창의 감동이 오늘 10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으로 이어져 민족화해를 위한 지속적 남북교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약금 및 용지권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기업)